

봉투 속의 말

작은외삼촌이 돌아가셨다. 나는 검은 옷을 입고 흰 봉투를 들고 장례식장에 갔다. 외삼촌동생들이 와 있었다. 내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큰외삼촌의 장례식에서이다. 어렸을 때 한동네에 살며 날마다 같이 놀았지만 이제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얼굴 보기가 힘들다. 영정 앞에 꽃을 놓고 절하고 옆방으로 가서 육개장을 먹었다. 나오는 길에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네모난 나무 상자에 넣었다. 봉투는 다른 봉투들 위로 떨어지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우체통에 편지가 떨어질 때와 비슷했다. 고인에게 보내는 뒤늦은 안부편지. 하지만 봉투 속에는 아무 말도 들어 있지 않다.

생각해보니 나도 외삼촌에게서 봉투를 받은 적이 있다. 집을 떠나 낯선 도시에서 공부할 때였다. 마침 그 도시에 불일이 있었던 외삼촌은 돌아가는 길에 나를 불러내어 저녁을 사주셨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연하장의 문구처럼 단순했다. 건강하냐, 공부는 잘되어 가냐, 네 엄마한테 자주 편지해라.... 그럴게요, 외삼촌. 외삼촌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은 봉투를 주셨다. 못다 한 말은 모두 이 안에 있다는 듯이. 봉투에는 여비에서 남긴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우리는 함께 있기 위해 말을 한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러면 커피가 식는 동안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은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은 내 시간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것이다.

우리는 떠나기 위해 돈을 준다. 돈을 주는 것 역시 시간을 주는 것이다.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시간은 네가나 없이 쓰게 될 시간, 내가 부재하는 시간이다. 바쁠 테니 이만 가볼게. 얼마 안 되지만 이걸 받아. 이 돈이 있으면 너는 일을 덜 해도 되겠지. 너는 잠을 자거나 책을 읽거나 긴 산책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너는 그걸로 일정한 양의 즐거움을 살 수도 있겠지. 영화관이나 놀이공원에서의 시간을. 나는 너를 놀이공원에 데려가지 않을 거야. 너는 다 컸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비어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

봉투들은 그러므로 모두 이별의 편지다. 이별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서로 부재의 시간을 선물하고 망각에 동의하면서(잘 지내시죠? 제가 없더라도 그래 내 걱정은 마라), 봉투를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짧고 드문 만남을 반복하면서, 이별은 서서히 완성된다. 당신의 존재가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을 때 그제야 부음이 당도하고, 나는 마지막 편지를 들고 당신을 보러 간다.

